

푸에르토리코의 언어 정책*

김경희(울산대 카리브 해 연구센터)**

- I. 서론
- II. 언어정책의 이론적 배경
- III. 스페인어와 영어의 대립과 공존
- IV. 결론

I. 서론

현대 모든 국가의 정부는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되는 정책을 어떠한 경우로든 실시하고 있다. 비록 ‘언어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국가나 공식어를 지정하고 공식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심에 문자와 언어 교육을 두고 있다.

카리브 지역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국가별로 언어 정책도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의 경우에는 1898년 스페인이 미·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지배권을 미국에 양도한 이후, 미국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언어인 영어를 스페인어와 나란히 공식어로 지정하고 그 교육을 강요한 까닭에 언어 정책이 100여년간 정치 논란의 핵심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푸에르토리코의 언어 정책의 변천 과정과 스페인어

* 이 논문은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M2009).

** Kyung-Hee Kim(Ulsan University, The Center for Caribbean Studies, moaikim@mail.ulsan.ac.kr), “Política Lingüística en Puerto Rico”.

와 영어의 대립과 공존의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이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와 언어와의 관계 및 경제와 언어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사회 구조가 인위적 권력에 의해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내 푸에르토리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 지역 언어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함과 동시에, 영어 공용화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재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언어정책의 이론적 배경

II.1. 이중언어 사회의 형성

국가는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동일한 민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사는 끊임 없이 변동하는 와중에서 여러 민족들의 혼성과 분열의 과정을 겪어왔으며 언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언어사회가 형성되었다. 패솔드(1984, 9-12)는 다언어사회 형성 동기를 이민, 식민지화, 연방화 및 언어접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II.1.1. 다언어사회 형성 동기의 유형(이성연 1986)

- ① 이민(移民): 이민은 어떤 국가를 다언어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민족이 이민에 의해 뒤섞여 살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단일언어 사회이던 것을 다언어사회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집단의 이민으로써 어떤 대집단의 민족이 자기들 영토를 확장하여 이웃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이 경우 토착인들이 오히려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이민들이 세운 나라의 국민으로 편입됨으로

써 다언어사회가 형성된다. 두 번째는 소집단의 종족이 다른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이주해 가는 경우이다. 이때 소집단 종족이 자기들 언어를 계속 계승하게 되면 그 국가는 이민 오는 종족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언어가 혼용되는 다언어사회가 된다.

- ② 식민지화: 식민지에서는 토착 언어와 정복자들의 언어가 함께 쓰이게 되므로 식민지화는 다언어사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토착인들을 지배 통치한다는 점에서는 식민지화와 대집단의 이민이 일치하나 후자의 경우는 이주해 들어가는 종족이 토착 종족보다 수적으로 앞서는데 반해 전자는 침략자가 수적으로는 토착 종족보다 열세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수적으로는 열세이면서도 그 언어는 통치자의 언어이므로 곧 행정의 언어, 교육의 언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그로써 식민지는 어쩔 수 없이 다언어 사회가 된다.
- ③ 연방(聯邦)화: 몇몇 종족을 연합하여 한 국가, 즉 한 연방국을 만들으로써 다언어사회가 되는 수도 있다. 연방은 자의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강제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 ④ 언어 접촉: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두 나라의 접경 지대는 다언어사회가 되는 수가 많다. 국경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상대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카리브해의 경우에는 스페인 식민화 이전에는 카리브어(*Caribe*), 아라와카어(*Arawak*), 타이노(*Taino*) 등의 토착어가 사용되었다. 스페인의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스페인어의 사용이 강요되어 식민에 의한 다언어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열강들이 대거 진출하여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유럽어들이 쓰이게 되면서 정치권력과 함께 지배 언어의 각축장이 되었다. 식민지배 시기 동안에 원주민이 흑사와 질병

으로 급격히 감소하자, 사탕수수 산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노예들이 유입되었으며, 다양한 아프리카제어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아랍인들과 아시아인들도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언어도 유입되어 이민에 의한 다언어사회가 형성되었다. 카리브 지역은 섬들로 이루어져서 대륙에서 관찰되는 언어 접촉에 의한 다언어사회의 형성은 드문 현상이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도미니카와 크레올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이티의 접경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될 것으로 예측된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미연방으로 합병되면서 스페인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연방의 형성이 강제적이었으며 영어의 사용 또한 강제적으로 종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식민지화의 한 유형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식민지 언어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지배언어가 우세한 언어로 자리매김하는데 반하여, 푸에르토리코는 100여 년의 미국 지배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일상의 보편언어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언어학자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II.2. 언어 정책

언어 정책(política lingüística)¹⁾이란 국가 혹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 언어의 특정한 변이형이나 특정 언어 혹은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일컫는다. 웨인스테인(1980, 56)은 ‘언어 정책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회 안에서 어떤 언어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의식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언어 정책의 목적은 고의적으로 어떤 언어의 발전을 육성하거나 저지하는 것이다. 언어 정책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

1) 1950~60년대에는 언어의 형태나 용법을 수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을 언어 계획(planificación lingüística)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적인 계획 활동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언어정책이라는 명칭이 선호되었다(스폴스키 1998).

지만 궁극적으로 정책 자체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이다. 와도우(1992, 347)은 언어 정책을 지위 정책(política de estatuto)과 자료 정책(política de corpora)으로 하위 구분하였다.²⁾

지위 정책은 한 언어나 한 언어의 변이형의 기능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신생 독립국가에서 공식 언어 혹은 국어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한 언어가 공식어로 지정되어 공문서나 교육어로 사용되면 그 지위는 상향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 언어의 지위는 하향되는 것이다. 이 지위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정책이 채택된다할 지라도 지위의 증감 변화는 느리게 진행된다.

자료 정책은 한 언어의 변이형이나 한 언어를 개발시키려는 것으로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자료 정책은 정서법, 새로운 어휘 자원 분석, 사전 편찬, 문학 작품 출판 장려 등 그 언어가 정부, 교육 기관 그리고 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용을 고의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카리브 지역에서 식민화와 연방화로 강요된 유럽 지배어의 사용은 이 언어들을 공식어화하고 교육어로 강요함으로써 장려되는 지위 정책이 중점을 이루어 왔다. 이에 반해 토착어와 유럽어의 중간어 형태로 생성된 자메이카의 크레올어와 아이티의 크레올어 등은 자국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료정책으로 장려되어 왔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에는 스페인어가 1898년 이전이나 이후 모두 지속적으로 공식어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1901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고 행정, 교육, 상업의 주도적인 언어로 강요 및 권장되어져 왔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1991년에서 1994년 사이에는 다시 유일한 공식어로 채택이 되었지만, 그 동안 공식 문서상에 사용된 영어의 보급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898년 이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 자료정책의 경우에는 영어는 미국

2) 김호진/박옥현(1999)에서 재인용.

의 원조로 강화되고 있고, 스페인어는 자국의 정체성을 두둔하는 자치정부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바루비아스(1983)는 언어 정책의 실제적인 결정 동기 부여에는 네 가지 이데올로기가 그 바탕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언어 동화와 언어 다원주의화, 자국어화, 국제주의이다. 언어의 동화는 모든 사람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신념이다. 언어 다원주의는 하나 이상의 언어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국어화는 토착언어를 복구하거나 정교화하고 나아가 이를 공식 언어화 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국제주의는 공식적인 언어로 교육이나 무역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토착어가 아닌 언어를 채택하는 것이다.

카리브 지역은 식민 시대에는 언어 동화주의가 팽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언어다원주의가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지식층은 자국어화를 주장하고 무역 등의 국제 교류 분야에서는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에는 1940년대까지 영어 동화 정책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에 반대하여 스페인어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자국어화 노력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경제 교류 등에 사용되는 영어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이를 받아들이는 국제주의적 동기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이중언어 교육을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III. 스페인어와 영어의 대립과 공존

III.1. 언어정책 변천과정

푸에르토리코 언어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한 모랄레스(200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1898년 미·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푸에르토리코에 제일 처음 실시한 정책 중의 하나가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

한 것이다. 1902년에는 “공식어 지정법”(Ley de Idiomas Oficiales)를 통해서 푸에르토리코 행정 업무 수행에 쓰이는 공용어로 스페인어와 영어를 선포하고 공립 학교 교육에는 영어만을 쓰도록 하였다. 미정부의 강압적인 교육정책과 언어정책의 목표는 푸에르토리코를 이중언어화하고, 더 나아가 영어만을 사용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화는 곧 영어 사용에 달려 있으며, 최종적인 미국화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가 자립정부를 가질 능력이 없다고 치부하고 비민주적인 정부와 독재적인 교육제도를 강요하였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고유한 언어와 문화 등의 문제에도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인들의 심한 스페인어 문맹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교육은 어린이의 영어 교육에 치중하였다.

미국의 식민지배 초기 25년 간은 기본 교육의 정착이 시도되었는데 푸에르토리코 대중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스페인 식민지배 말기에는 5세에서 17세 사이 아이들의 학교 진학률이 8%에 불과했었는데, 1904년에는 16.1%에 해당하는 48,811명이 진학하였고 1907년에는 65,436까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증명한다.

그러나 미국의 강압적인 교육 정책은 커다란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것은 교육의 최대 목표가 영어를 통한 미국화였지, 내용 면에서 충실한 교육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마저도 이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였다. 영어와 미국 문화를 우위에 놓고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열등적인 위치에 놓는 교육은 대중들의 반감을 사서, 푸에르토리코의 정체성을 살리고 스페인어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초등학교 첫 수업부터 스페인어 화자인 어린이들에게 영어만 쓰도록 강요하는 교육방침은 학생들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거부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혼용해서 쓰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1915년에서 1934년까지는 4학년까지는 스페인어로만 수업을 하고 5학년에는 절반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영어

만을 사용하는 수업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 일반 대중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는 현격한 진전이 없었다. 이는 미국이 식민 언어 정책에는 서툴렀으며 푸에르토리코인들은 굳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지 못해 이 언어의 사용을 주저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 드렉스터 미행정관은 89.5%에 해당하는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스페인어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장학관들이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교육과는 달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미국 식민지배 초창기부터 1949년까지 항상 영어가 공식 교육언어였다. 이 시기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소수 상류 특권층의 자녀들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인 일반 대중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었지만, 고등학교까지 마친 엘리트 계층은 완전한 이중어 화자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계층간의 차이가 더 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1949년은 교육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해이다. 스페인어를 교육 공식어로 지정하였고, 그 이후로 공립 고등학교 진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스페인어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소수특권층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진학시키지 않고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립학교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상류층의 자녀들은 계속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아무런 언어 장애를 느끼지 않고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반면, 공립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영어 실력 부족으로 미국 대학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푸에르토리코에 안주하며 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진학하였다. 노동시장에서 미국 유학 교육을 받은 이중어 화자들은 국내 단일어 화자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1952년 미합중국에 연합된 자치주로서의 푸에르토리코 연방 성립은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 달러화 사용과 관세법 및 연방법의 적용은 상업 교류를 증폭시켰다. 많은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미국 본토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서 1975년까지 일어났던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들 이주민들이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약 447,900명이 이 시기에 되돌아 왔으며, 그 이후로 수적으로 줄기는 했으나 미국 본토로 건너가거나 푸에르토리코로 되돌아 오는 이주는 지속되었다. 푸에르토리코 통계청(Ateneo de Puerto Rico)의 자료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6.3%가 미국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압적인 언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 통계 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25%만이 이중언어 화자로 분류되었다. 1990년대 초에 공식어 문제는 다시 사회·정치적 이슈로 떠올라 1991년 4월 5일 “공식어 지정법”(Ley de Idiomas Oficiales) 제 4조에 스페인어가 단일 공식어로 지정되었다. 여당인 인민민주당은 푸에르토리코의 미연방 자치주의 지위도 독립 국가의 지위도 반대하였고 몇몇 영역에서의 자치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야당이 미연방 자치주가 되어도 스페인어는 공식어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곧 37개 정부 기관 및 상업 분야에서 상업 송장과 문서 및 광고물 업무가 영어로 통용되다가 갑자기 스페인어로 전부 바꾸어야 하는 큰 곤란이 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할 것을 호소했다. 그 다음 총선에서는 미연방 자치주가 될 것을 주장하는 당이 여당이 되자, 제일 먼저 공식어에 대한 규정을 바꾸었다. 1993년 1월에 스페인어와 영어가 다시 나란히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일반 대중들은 스페인어와 영어를 다같이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더 많은 지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푸에르토리코의 100여 년 간의 언어 정책은 이 사회를 완전한 영어 사용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아직도 이중언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전체 푸에르토리코인 대비 영어 능력 소유자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는 것이 <표 1>에서 관찰되지만, 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비율은 24%에 불과하며 52%가 영어를 모른다고 답하여서 영어가 100여 년 간 공식어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공식어의 역할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벨레즈(2000)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는 영어의 모국어 화자인 미국인들이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한 비율은 절대적으로 적어서 토착민과 원어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적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스페인어가 푸에르토리코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지역적 토착어가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언어로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자긍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치 정부의 정치가들은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장려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4%였던 영어 구사 능력 소유자가 1950년에는 26%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영어가 확산되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의 속도는 일일생활권의 확대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미국인들과 푸에르토리코인들과의 접촉이 갈수록 증가될 것이며, 대중이 이미 스페인어와 영어의 동등한 지위를 지지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표 1> 전체 푸에르토리코인 대비 영어 능력 소유자의 비율³⁾

(단위 : %)

조사 연도	비율	유창함	서툰
1910	4	-	-
1920	10	-	-
1930	19	-	-

3) Fayer(2000)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1910년부터 1970년까지는 1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80년과 1990년에는 5세 이상이 대상이 되었다. 유창성의 정도도 1980년과 1990년에 들어서야 질의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다. 1990년 전체 인구는 3,219,765명이었다.

조사 연도	비율	유창함	서툰
1940	28	-	-
1950	26	-	-
1960	38	-	-
1970	43	-	-
1980	41	19	22
1990	48	24	24

III.2. 양 언어의 사용 현황

III.2.1. 양 언어의 병용(diglosia)

“언어의 병용”이란 ‘이언어의 사용’ 혹은 ‘두 언어변종의 나누어 쓰기’의 개념으로, 페르구손(1959)이 두 언어 혹은 두 방언이 동시에 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정의한 것이다. 구체적은 같은 언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다른 두 가지 변종이 한 사회에서 사용되면서 두 가지 변종이 고급과 그렇지 않은 변종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이다. 이 두 변종은 사용되는 장소와 상황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서로 같은 장소와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고, 고급 변종은 가정에서 모어(lengua materna)로 습득된 것이 아니며 성장한 후에 학교 등에서 배운 변종이 대부분이다.

카리브 지역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러한 언어의 병용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메이카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뉴스 기사에 기본적으로 표준 영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지식층인 기자들마저도 자메이카 크레올 영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구어체를 사용한다. 아이티의 경우에는 크레올 프랑스어를 공식어로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화자들은 표준 프랑스어를 구사함으로써 상류 사회의 규범 및 제도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식·무의식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고, 독립주의자들 역시 표준

프랑스어를 포기하고 크레올 프랑스어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에도 행정과 무역의 영역에서 문어로는 영어가 주로 사용되지만, 구어에서는 아직도 영어와 함께 스페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과 사용하는 언어로는 스페인어의 사용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표2]의 영어 능력에 대한 자가 진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언어의 수동적인 능력인 읽기와 듣기에서 말하기와 쓰기보다 더 유창하다고 답을 하였는데 이는 영어로 제공되는 공문서와 대중매체에 대한 수동적인 노출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표 2> 영역별 영어능력 자가 진단⁴⁾

(단위 : %)

	구사수준	1976년 (285명 대상)	1987-1988년 (292명 대상)	1996년 (160명 대상)
말하기	유창함	8	14	16
	잘함	29	30	26
	보통	39	30	31
	서툰	11	19	21
	못함	14	8	6
읽기	유창함	14	19	26
	잘함	39	37	43
	보통	30	25	24
	서툰	6	13	7
	못함	11	6	1

4) 파에르(2000)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17세에서 90세까지의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한 것이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22세에서 60세까지였고 다양한 수입과 직종의 분포를 보였다.

	구사수준	1976년 (285명 대상)	1987-1988년 (292명 대상)	1996년 (160명 대상)
듣기	유창함	20	20	26
	잘함	37	36	38
	보통	30	26	26
	서툰	3	13	10
	못함	10	6	1
쓰기	유창함	13	11	19
	잘함	30	33	34
	보통	32	31	32
	서툰	11	15	12
	못함	14	9	3

언어 병용의 상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으로 피쉬맨(1971)은 언어의 선택은 장면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도메인(dominio)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용어는 시간, 상황, 인간관계 등의 요소들을 포함시킨 인간의 활동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메인에 따라 사용 언어가 선택되어진다고 보고, 가정, 친구관계, 종교, 교육, 고용관계라는 주된 도메인을 구분하였다.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영어와 스페인어의 사용 현황을 이 도메인의 구분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가정, 친구관계, 종교에서는 스페인어만이 주로 쓰이고 교육과 고용관계에서 스페인어와 영어가 병용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페인어와 영어의 사용 비율에 대한 자료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93%가량이 자신의 첫 언어가 스페인어였다고 답하였고, 대다수가 74%이상을 스페인어로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어는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 도메인에서 스페인어의 사용이 월등함을 관찰할 수 있고, 일부 특정 사립학교의 엘리트 교육을 제외하고는 언어의 병용이 관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교육에 있어서 스페인어와 영어의 사용 비율⁵⁾

(단위 : %)

		1976년 (285명 대상)	1987-1988년 (292명 대상)	1996년 (160명 대상)
학교 교육 기간	0-6년	14	9	1
	7-12년	39	35	25
	전문대	36	47	29
	대학교육	9	6	32
	대학원 이상	2	3	12
학교 유형	공립	82	68	50
	사립	10	10	20
	양 기관	9	22	30
교육 언어	스페인어	74	78	74
	영어	10	3	7
	양 언어	17	19	9
영어 학습장	학교	59	67	77
	미국	29	18	12
	학교와 미국	7	11	6
	배우지 않음	4	3	5

고용관계에 있어서 언어의 병용에 관한 <표 4>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 중에서 쓰기가 53%로 가장 사용 빈도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 파예르(2000)에서 재인용.

<표 4> 업무상 영어 사용 비율⁶⁾

(단위 : %)

		1976년 (285명 대상)	1987-1988년 (292명 대상)	1996년 (160명 대상)
읽기	매일	29	22	47
	일주일에 한 번	8	25	5
	한 달에 한 번	6	4	1
	가끔	22	36	23
	전혀 쓰지 않음	35	13	23
말하기	매일	20	9	27
	일주일에 한 번	6	2	9
	한 달에 한 번	7	3	2
	가끔	31	23	29
	전혀 쓰지 않음	37	63	33
쓰기	매일	10	6	6
	일주일에 한 번	10	4	6
	한 달에 한 번	6	7	4
	가끔	18	20	32
	전혀 쓰지 않음	57	64	53

결론적으로, 도메인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푸에르토리코는 양 언어가 병용되는 이중언어 지역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영어 사용이 강요되고 있는 스페인어 사용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 영어 사용을 강요하는 외적 요소로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과 같은 표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중언어 사용자인 경우가 많다는 통계조사 <표 5>에서 보여주듯이 개개인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6) 파예르(2000)에서 재인용.

현상은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을 생겨나게 해서 이중언어 사회로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표 5> 수입 대비 영어 능력⁷⁾

(단위 : %)

수입 수준	유창함	서툰	못함
0 ~ \$999	19	24	57
\$1,000 ~ \$1,999	17	21	62
\$2,000 ~ \$2,999	15	21	64
\$3,000 ~ \$3,999	17	22	60
\$4,000 ~ \$5,999	21	26	53
\$6,000 ~ \$7,999	25	29	46
\$8,000 ~ \$9,999	31	32	37
\$10,000 ~ \$14,999	41	34	25
\$15,000 ~ \$24,999	56	28	15
\$25,000 ~ \$49,999	74	18	8
\$50,000 이상	83	11	6

III.2.2. 스페인어에 미친 영어의 영향

솔레(1990)와 로베스(1982) 등의 언어학자들은 푸에르토리코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페인어의 사용이 영어의 사용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내쉬(1970)는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산 후안에서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영어의 영향에 대해 “스페인어 어순에 따라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스페인어식으로 발음한다”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에서는 overhead, input, CD rom, carrier 등과 같은 신조어의 경우에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다른 스페인어 사용 지역에서 차용되지 않는

7) 파예르(2000)에서 재인용.

army, anyway, baby, boss, building, brown, lipstick, nice, plain, tishirt[T-shirt], weekend, welfare, teler 등의 영어 어휘가 기존의 스페인어 어휘를 대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섬유산업, 금융과 증권 분야에서 영어 전문 용어의 차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미국과 직접적인 연관 산업 분야이거나 노동자의 다수가 푸에르토리코인들로 구성된 까닭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모랄레스(2000)는 영어의 영향에 의한 푸에르토리코 스페인어의 통사적 변화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에는 동사원형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설법과 접속법의 구분 체계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a)와 같이 동사원형으로 표현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1b)와 같이 접속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a. Para los niños nacer, tenían parteras.

b. Para que los niños nacieran, tenían parteras.

(모랄레스 2000)

특히 전치사 para 다음에 주어와 동사원형을 사용하는 구조를 생성하여 접속법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은 (2)와 같이 동사원형의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para와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경우 전치사의 목적격인 mí를 사용하지 않고 주격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접속법 구문을 기피하고 전치사 para가 이끄는 구문을 선호하는 현상은 영어에서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와 함께 나타나는 것에서 유추된 언어간의 간섭현상으로 분석된다.

(2) Era duro para yo meterme con esos niños ingleses.

(립스키 1987)

또한 영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전치사 용법간의 간섭 현상으로

스페인어 전치사의 오용이 증가되고 있다. 가장 많이 관찰되는 오용은 영어 전치사 in과 스페인어 전치사 en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여타 지역의 스페인어에서는 con, a, por, de 등의 전치사가 쓰여할 문맥에 en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a)에서는 전치사 en이 con대신에 쓰이고 있으며, (3b)에서는 a대신에 쓰이고 있다.

- (3) a. Él deseaba ocultarlo en la esperanza de establecerse a tiempo.
b. Me vendría en el Paso.

(모랄레스 2000)

이 밖에도 현재진행형이 잘 쓰이지 않는 스페인어에 영어의 구조에 유추한 “*estar siendo* + 과거분사”의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양 언어를 뒤섞어 쓰는 “코드 스위칭”(cambio de código)현상과 acá, ahí 등의 지시사의 과용과 등위 접속구문의 증가, 무분별한 무인칭 se의 사용도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III.2.3. 순수 스페인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반응으로, 클렘핏-던랩(2000)은 순수 스페인어와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정체성을 결부시켜 영어의 영향을 배척하고 순수 스페인어를 지키고자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고 주장한다. 문필가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모모”(Momo)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호세 메르가도는 “스페인어”(La Lengua Castellana)라는 시를 쓰고 “영어식표현(Yanquerías)”라는 신문 칼럼을 집필하였다. 시인이자 변호사인 안토니 빼레스는 “안띠야스의 잡지”(Revista de las Antillas)를 출판하고 “인종”(La Raza)와 “우리 깃발”(Nuestra Bandera)라는 시를 지었다. 1932년 시인이자 언론가인 아우구스토 말라렛은 “내 조국과 내 언어를 위하여”(Por mi patria y por mi idioma)를 썼다.

호세 데 디에고와 같은 정치가는 1915년 스페인어를 유일한 공식어로 사용하는 법안을 제시하였고, 1904년에서 1906년까지 국회의장

이었던 로센도 마띠엔소 신부론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는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이스 무뇨스 리베라는 그의 정치적인 연설에서 대외적으로 “푸에르토리코인을 위한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para los puertorriqueños)를 주장하였고, 그의 아들인 루이스 무뇨스 마린도 그와 마찬가지로 “양키인가 푸에르토리코인인가”(O Yankee o puertorriqueño)라는 연설 등으로 푸에르토리코인의 정체성과 언어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1930년대에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에 미국 국기 대신에 푸에르토리코 국기를 게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네스 멘도사는 영어를 교육어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여 1937년에 해임되었다. 교사협회(Asociación de profesores)는 공개적으로 푸에르토리코의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1946년 교육부 행정관이었던 마리아노 비야롱가는 교육어로 스페인어를 지지하다가 해임되었으나, 1949년에 다시 재임되어 스페인어를 공립학교의 공식 교육어로 지정하였다.

1916년 창립된 “안띠야스 언어학회”(Academia Lingüística de las Antillas)는 1952년에 창립된 “푸에르토리코 언어학회”(Academia Lingüística de Puerto Rico)의 전신으로, 스페인어의 통일성, 순수성, 풍부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이 언어로 된 문학작품, 드라마, 선집 등의 출판을 장려했다. 또 다른 기관으로는 1969년 설립된 “아우구스또 말라렛 스페인어 어휘학회”(Instituto de Lexicografía Hispánica de Augusto Malaret)가 있는데 이 기관은 영어차용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스페인어 어휘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주력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에는 세르히오 빼냐 끌로스 의원 등과 같은 정치인들이 스페인어만을 유일한 공식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라파엘 에르난데스 풀론 주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푸에르토리코 대학의 빼드로 후안 루아 교수는 “토착어 보호를 위한 범국민 운동”(Acción Nacional para la Defensa del Vernáculo)을 전개하였고 1989년 “푸에르토리코 문화 학회”(Instituto Cultural de Puerto Rico)에서 4월 17일을 스페인어의 날로 정하였다.

신문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들도 순수 스페인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여 왔다. 일간지들인 “세계”(el Mundo)지의 “언어노트”(Apuntes Lingüísticos), “대화”(Diálogo)지의 “마침표와 콤마”(Punto y Coma), “새 날”(El Nuevo Día)지의 “이렇게 말하세요, 제대로 말하세요.”(Dígalo así, Dígallo bien). “광명”(Claridad)지의 “스페인어를 합시다”(Hablemos Español)라는 칼럼을 통해서 영어 차용어 대신 순수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는 WEUC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하여”(En defensa del Idioma)와 다른 방송사의 “공중의 오솔길”(Senderos del Aire)이 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는 “오늘의 어휘”(La Palabra de Hoy)와 “실수와 공포”(Errores y Horrores) 등이 있다.

IV. 결론

다양한 언어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스페인어가 영어 보다 아직도 우세한 이유로는 첫째 영어의 모국어 화자인 미국인들이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한 비율은 절대적으로 적어서 토착민과 원어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적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인어가 푸에르토리코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지역적 토착어가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언어로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자긍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치 정부의 정치가들은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장려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공식문서, 정부 문서, 상업 광고 등에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도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완전 단일어 화자와 완전 이중어 화자로 분류되는 양극 사이에 존재하는 천차만별의 화자 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학적인 현상들이 스페인어가 영어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들이 일상어의 사용을 스페인어에서 영어로의 전환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두 언어간의 귀추는 언어간의 영향 관계보다는 정치·경제적인 외적 요인이 대중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영어가 좋은 직장을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회적인 믿음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식민 언어 정책에 의해서 보급된 스페인어가 역사의 흐름 속에 토착어를 사멸시키고 이제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어 볼 때, 장기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스페인어에서 영어로의 전환 또한 가능한 일임을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수세기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므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과도기적인 언어 접촉으로 인한 혼종적 양상이다.

Abstract

La situación lingüística en Puerto Rico es poco conocida en Corea. En el campo de la educación y la administración, la política lingüística es uno de los ejes principales de la discusión en esta zona, ya que su americanización empezó declarando el inglés como lengua co-oficial junto con el español desde 1898.

En el segundo capítulo tratamos la base teórica relacionada con la sociedad bilingüe o multilingüe y los factores que influyen en la toma de decisión de una u otra política lingüística en este tipo de sociedades. En el tercer capítulo observamos los pasos históricos en el cambio de la política y las reacciones del pueblo portorriqueño. Como datos observables citamos varios estudios estadísticos sobre la conciencia lingüística del mismo pueblo y el modo de la educación bilingüe.

Con todos los aspectos considerados, concluimos que en el nivel

lingüístico el poder imponente del inglés ante el español no es sumamente significativo, pero en el nivel social domina la creencia de que el inglés es imprescindible para conseguir una buena posición social de alto ingreso. Esta creencia y otros intereses personales hacen que el inglés gane más y más prestigio en la zona.

Key Words: Puerto Rico, Política lingüística, Sociedad bilingüe, Español e inglés / 푸에르토 리코, 언어 정책, 이중언어 사회, 스페인어와 영어

논문투고일자: 2004. 3. 29

심사완료일자: 2004. 4. 13

게재확정일자: 2004. 4. 20

참고문헌

- 김호진/박옥현(1999), 『언어와 사회』, 세종출판사.
- 루이-장 칼베(2001), 『언어전쟁』, (김윤경/김영서 역),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0), 「공용어론과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No. 17, 이중언어학회, pp. 27-55.
- 버나드 스폴스키(1998), 『사회언어학』, (김재원 외 역), 도서출판 박이정.
- 이성연(1986), 「소수민족 언어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No. 24, 한국언어문학회, pp. 29-49.
- 이재학(1999), 「언어의 보존과 상실 - 미국내 스페인어의 현주소」, 서어서문연구, No. 15, 한국서어서문학회. pp. 193-214.
- 최종호(2001), 「영어공용어론에 대한 소고」, 인문논집, No. 20,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43-68.
- Azuma Shoji(1990), 『재미있는 사회언어학』, (박문성 공역), 도서출판 보고사.
- Calvo Pirez, Julio(2001), *Contacto de lenguas en América: el español en el candelero*, Madrid: Iberoamericana.
- Celia Zentella, Ana(1990), “Returned migration, language, and identity: Puerto Rican bilinguals in dos worlds/two mundo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Languages*, No. 84, pp. 81-100.
- Clampitt-Dunlap, Sharon(2000), “Nationalism and native- language maintenance in Puerto Rico”,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s*, No. 142, pp. 25-34.
- Cobarrubias, J.(1983), “Ethnic Issues in Status Planning”, in J. Cobarrubias and J.A. Fishman(eds.). *Progress in Language Plan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Fasold, R. W.(1984),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 Fayer, Joan M.(2000), “Functions of English in Puerto Rico”,

-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s*, No. 142, pp. 9-102.
- Ferguson, C.(1959), "Diglossia", *Word*, No. 15, pp. 325-340.
- Fishman, J. A.(1971), *Sociolinguistics*, Rowley, MA: Newbury House.
- Gumperz, John J.(ed.)(1983), *Languages and Social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pski, John(1987), "Language contact phenomena in Louisiana Isleño Spanish", *American Speech*, No. 62, pp.320-331.
- López Morales, Humberto(1982), *Vocabulario de mayor uso en la industria textil de Puerto Rico(español-inglés, inglés-español)*, San Juan: APLE.
- Morales, Amparo(2000), "¿Simplificación o interferencia?: el español de Puerto Rico",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s*, No. 142, pp. 35-62.
- Nash, Rose(1970), "Spanglish: language contact in Puerto Rico", *American Speech*, No. 45, pp. 223-233.
- Pousada, Alicia(2000), "The competent bilingual in Puerto Rico",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s*, No. 142, pp. 103-118.
- Ringer Uber, Diane(2000), "Dealing with Bilingualism: Business language in Puerto rico",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Vol. 19, No. 2, pp. 129-142.
- Solé, Yolanda R.(1990), "Bilingualism: stable or transitional? The case of Spanish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No. 84, pp. 35-80.
- Solis Jordán, José(2000), "Language as possibility: comment on identity and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s*, No. 142, pp. 157-173.
- Vélez, Jorge A.(2000), "Understanding Spanish-language maintenance in Puerto Rico: political will meets the demographic impera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s, No. 142,
pp. 5-24.

Wardhaugh R.(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asil
Blackwell.

Weinstein, B.(1980), "Language Planning in Francophone Africa",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Vol. 4, No. 1, pp.
55-77.